



- … 본회가 주최한 제 …○
- … 103회 발명교실이 …○
- … 지난 9月 5日 발명 …○
- … 장려관 연구실에서 …○
- … 개최됐다. 매월 돌 …○
- … 쟁 토요일 오후 1 …○
- … 시 30분에 개최되는 …○
- … 발명교실은 이달에 …○
- … 도 1백여명이 참석 …○
- … 하여 성황을 이루었 …○
- … 다. 이날 발명 교실 …○
- …에서는 한진엔지니어링 …○

# 전자동 온돌판넬 발명가

## 한진엔지니어링 노연구 사장

월남전 참전용사였던 노 연구 사장은 지칠줄 모르는 연구노력과 개발로 이미 보일러업계의 터주대감으로 통하고 있으며 전자 온돌판넬의 개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연탄가스 중독이 없는 안락한 생활을 누리게 하고 있다.

그가 보일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70년부터였다.

당시의 난방방식은 연탄화덕을 이용한 난방방식으로,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연탄가스로 인한 사망이 엄청났다는 것이다.

그때에 벌써 노연구 사장은 연탄가스를 진단하는 전

문가로 통했고 경찰서에서도 연탄가스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게 연락할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날 연탄가스로 한가족이 몰살된 장면을 목격한 후 노사장은 연탄가스 없는 보일러를 개발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새마을 보일러.

화덕에서 나오는 연탄가스를 뚜껑으로 덮어서 난방에 이용한 것이었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있었다.

공사가 시간이 길고 고장이 잦다는 점이 이 난방방식의 문제점이었는데 노사장은 그래서 전기를 이용하여 물을 덮혀서 그 온수로 난방하는

온돌판넬을 제작, 시공을 하였다.

이 방식은 일단 연탄가스 중독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환영받았지만 고장이 많고 공사기간이 길다는 문제점은 극복하지 못했다.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뜨겁게 한후 낮에 난방을 하는 방식도 있었지만 하루종일 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물탱크가 안방의 반을 차지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탄이나 가스, 기름 보일러 등은 연료를 교체할 시기에는 외출을 못하는 일도 있었지요.」

이런 불편으로 노사장은 물탱크도 없고 보일러도 없는 획기적인 온돌판넬을 개발하

# 發明教室 成功事例 등 發表

- … 어링 노연구 사장 …○
- … 의 성공사례 발표 …○
- … 에 이어 黃宗煥 變 …○
- … 리사의 「산업재산 …○
- … 권제도」에 대한 강 …○
- … 의와 金寬衡 本회 …○
- … 상근이사의 「발명의 …○
- … 발상기법과 사업」에 …○
- … 대한 강의가 있었다. …○
- … 발명가의 성공 사례 …○
- … 를 간추려 소개한 …○
- … 다. <柳泰洙 記> …○



기에 이르렀다.

1970년부터 시작하여 1987년 개발에 성공하였으니 거의 20년이 가까운 세월이고 이토록 긴 시간을 난방방식에 대한 연구와 보완을 했기에 전자온돌판넬의 기능은 놀라운 정도.

우선 조립식이기 때문에 일반주택은 물론이고 숙직실, 선박 등 모든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방바닥을 뜯을 필요도 없고 이사를 가도 다시 재조립해서 쓸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연료비가 적게 들어 경제적이라는 점인데 재래식에 비해 30%의 연료절감을 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만 난방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적외선방식이기 때문에 건강에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세라믹코팅 방식을 써서 복사열과 전도열로 난방을 하게 됩니다. 원적외선이 우리

몸을 건강케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이밖에도 작동후 10분 이내에 난방이 되는 급속난방, 무거운 가구를 올려놓아도 거뜬해서 반영구적이라는 점 등 전자동 온돌판넬의 장점은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

한국전기전자시험소의 엄격한 시험검사를 거쳐 품질을 보증하는 Q-마크를 획득하기도 한 이 온돌판넬로 기존의 난방문화가 새롭게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나 완벽을 추구하는 노사장의 눈에는 부족한 점이 보였다.

전자동온돌판넬로 방바닥은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윗풍은 막을 수 없다는 한계를 느낀 것이다.

고민하던 노사장은 새로운 착상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병풍히터.

「이 병풍히터도 원적외선으로 발열하도록 하기 때문에 건강에 크게 도움을 줘

다.」

그뿐만 아니라 공해가 전혀 없는 깨끗한 실내 난방시스템이며 이동이 간편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고 기존의 난방기기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운치있게 따뜻하게 해 준다.

1982년 2천만원을 가지고 한진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한후 NO보일러인 전자동온돌판넬, 윗풍을 막아 주는 병풍히터의 개발로 이제 노사장의 사업은 본궤도에 올랐고 앞으로는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 산업재산권 연수 (관리과정)

10.28~30

문의: 발명진흥부  
(555-6845)